

고흥군민 10명 중 8명 “군정 운영 잘하고 있다”

민선 8기 만족도 전년비 0.2%p 올라
2년 연속 ‘군민 소통’ 1위 달성 빛나
우주항공·복지·지역경제 등 성과 주요
공영민 군수 “2030 인구 10만 실현 최선”



고흥군민 10명 중 8명이 군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실시한 군정 만족도 조사 결과, 고흥군민 85.1%가 군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10일 5일간 만 18세 이상 고흥군민 1천10명을 대상으로 군정 만족도를 묻는 여론조사로 이뤄졌다.

‘민선 8기 고흥군이 군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 평가는 지난해보다 0.2%p 상승한 85.1%로, 여전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85.4%, 여성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87.7%) ▲40대 (78.5%) ▲30대 이하 (75.3%) ▲50대 (74.2%) 순이었다.
군민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군민 소통’(18.0%)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우주항공(14.5%) ▲주민복지(13.3%) ▲지역경제 활성화(11.4%)가 뒤를 이었다.
주요 정책별 만족도에서는 ‘우주항공 정책’이 8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82.3%) ▲관광(80.6%) ▲정주기반 확충(78.7%) ▲문화예술·체육 육성(78.0%) ▲주민복지(77.5%) 순이다.
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고흥군이 추진한 주요 성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우주, 드론-UAM, 스마트팜 등 3대 미래전략사업과 광주-고흥 고속도로, 우주선 철도,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포장 등 3대 교통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년 연속 농수산물 수출 1억 달러 달성, 권역별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정주 기반 확충,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전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군민 통합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 공감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적극 소통하며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유선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박현진 기자

광양, 섬진강권 관광벨트 ‘K-관광’ 도약 본격화

섬진강스테이 거점 캠핑장 연계 육성



광양시가 섬진강권 관광벨트 조성으로 ‘K-관광 중심지’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남유니크 베뉴로 주목받고 있는 광양 원도심 인서리공원에서 광양, 곡성, 구례, 하동 등 섬진강권 4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광양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과 실무진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과 ‘2025년 관광진흥사업’, 실무협의회 워크숍 추진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4개 시·군은 2025년 관광진흥사업으로 ‘섬진강 별빛 캠핑 페스타’를 채택해 섬진강스테이의 핵심 거점인 위케이션을 중심으로 캠핑장을 연계 육성하기로 했다.

이러 정유준 한국지역개발연구원 박사가 ‘섬진강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를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등 관광진흥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는 4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한 성장 모델”이라며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로 체류형 관광

여수도시관리공 ‘ESG·혁신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내달 28일까지 접수...주민참여경영 강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19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참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ESG·혁신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월28일까지이며, 공단 누리집에 올라온 제안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 관심있는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공단 업무와 관련된 ESG·혁신으로 ▲환경(탄소중립, 친환경) ▲사회(시설안전, 사회공헌, 일자리창출, 저출생) ▲지배구조(윤리경영, 참여경영) ▲혁신(디지털·AI혁신, 경영혁신) 4개 분야다.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이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여수=김진선 기자

를 거쳐 최우수상 등 5건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내부 검토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향후 공단 경영 계획에 적극 반영 예정이다.
공단은 주민참여예산제, 고객모니터링단, 찾아가는 CEO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주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유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제안된 소중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시민 서비스 및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군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소득관계 없이 100만원 지원

장흥군이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심화와 기존 자녀 돌봄 부담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회복 관련 병원비, 약품비 등이 출산가정에 지원된다.
지난해 출산한 산모 중 절반 이상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실패 ▲자녀 양육 부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이용이 어려웠던 산후조리에 불편함을 겪었다.

장흥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후조리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장흥군에 주소를 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재배한 감자를 수확해 선별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 월산면 지사協, 직접 키운 감자로 나눔 실천

지역사회서 무료 퇴비 지원 등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재배한 감자를 수확해 경로당 27개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서는 감자 재배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유희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퇴비를 지원하는 등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감자를 키워 총 176상자(10kg 외)를 수확했으며, 판매한 일부

수익금은 내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강임·이우영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자 수확에 힘써준 협의체 위원들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 무더위 어르신 건강 지킨다

경로당 등에 냉장고·에어컨 교체 지원

장성군은 19일 “하절기 폭염에 대비해 취약 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2025년 폭염대비 보호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이달 경로당·노인활용시설 25곳의 냉장고, 에어컨 교체를 지원했다. <사진>
무더위가 이어지는 혹서기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시간을 조정하고, 근무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은 돕는 생활지원사들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 혹서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생활지원사(100명), 어르신지원단(60명)을 적극 활용하고,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취약노인 보호에 나선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와 냉방비도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 야간에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개방하니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구례군, 장마철 대비 하수도시설 정비

상습침수지역...퇴적물 제거 등

구례군은 19일 “지난 16일 장마철을 대비해 구례읍 봉동리 일원(5일시장 앞-구례공영버스터미널)에서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시설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활동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을 비롯한 직원 14명과 구례군 관계 공무원 등 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하수관로 청소, 시설물 점검 등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침수 발생이 잦았던 도로변 저지대 구간을 중심으로 하수 유입구 폐쇄 여부 및 토사 적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신속한 정비를 실시했다.
구례군은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구례읍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도 일체 정비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장마철을 앞두고 선제 대응으로써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